

~主内平安~

기도 편지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3월인지 4월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4월은 저희에게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1. 난디(Nadi)에서의 연합 예배

피지는 설날과 같은 동양 명절 공휴일은 없지만, 부활절은 비교적 길게 쉬는 명절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월 첫째 주는 부활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일주일 전부터 여러 차례 의논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난디 중국인 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경치도 구경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차 세 대로 한 마트 근처에 모여 기도한 후 출발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 형제님이 마트에서 성도들을 위해 물 한 팩을 사 왔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 나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워 자매님들과 함께 근처 화장실로 가서 모든 병을 하나 하나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약 5시간의 이동 끝에 모두 안전하게 난디에 도착했습니다.

난디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작은 관광 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수바보다 난디를 더 선호합니다. 난디 교회는 약 10여 년 전 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교회의 제도와 구조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은 공석이며, 한 장로님의 인도 아래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고 성도들도

50명 이상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많이 출석하여 찬양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발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차 방향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저희는 한 자매의 초청으로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엘림교회 리더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가정과 만났던 인연이 있습니다. 난디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동안 자매님은 교회의 분열 속 여러 공격 가운데서도 눈물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민박을 운영하며 방문하는 목회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자매님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을 통해 2년 전에 중국에서 온 40대 중국인 목사님 가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난디 중국인 교회에서 평신도로 출석하고 있고, 내년에는 담임목사로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 목사님 댁으로 가는 날, 태풍으로 인해 정전이 되고 상황이 좋지 않아 자매님이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동 중 차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순간, 신기하게도 바람과 비는 바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큰 감사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기도 없는 어두운 목사님 댁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피지에서 처음 1년 동안 겪었던 어려운 생활과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피지에서 또래 중국인 사역자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

니다.

난디에 머무는 동안 주일 예배와 기도회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피지에 있는 중국인 교회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매님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2. 새집에서

새집 청소는 한 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밖에서 나사를 풀고 들어오는 강도를 방지하기 위해 방범창은 실내 쪽에 설치했습니다. 습한 환경 탓에 흰색 페인트에 곰팡이가 생겨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닦아가며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은 벽 페인트는 새로 해주지 않았지만, 고장 난 변기와 샤워헤드를 수리해 주어 감사했습니다.

이사 전 걱정 했던 외출 문제도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집 2층에 한인교회 집사님 가정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를 집으로 초청해 티타임을 나누며 생활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토요일 새벽마다 장을 보러 갈 때 함께 동행해도 된다고 하여 장보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분을 통해 도와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갈 때는 교회 리더들의 차를 타고 갑니다. 요즘 아기 카시트가 없어 혹시 문제가 될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저희의 피지 생활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 중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께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 3. 방전이 충전되는 시간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금식 기도의 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기도에 대한 마음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또한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했던 저희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육아로 인해 꾸준한 기도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만, 아기가 잠든 시간에 우선적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 나눔 시간에 항상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며 이야기해서 자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괜히 오해를 받을까 봐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가장 이야기가 많던 자매가 먼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순간을 보며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일 저녁 금식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누렸고, 토요일과 주일 예배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저녁, 한 형제님이 멀리 일을 나가기 전 송별 모임으로 노래방에 모여 술을 마시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낮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고생하는 환경이다

보니 술에 대한 경계가 비교적 느슨한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이 아직 주일의 의미와 신앙의 중심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은 이해되지만, 아직 신앙적인 기준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인도하고 세워갈지 계속 기도하며 방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도 더욱 균형 있는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선교사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나 실수가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큰 힘을 얻습니다. 피지 중국인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 저희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먼저 저희를 성장시키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에 힘쓰며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 기도 제목

### 1. 저희 부부의 믿음과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역 준비와 육아를 병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매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상황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교회 제도를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교회에 제도가 아직 없어 여러 면에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난디 중국인

교회의 제도를 참고하고 여러 목회자들의 조언을 구하여 엘림 중국인 교회의 제도를 세워 갈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엘림 중국인 교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생명의 삶> 재시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삶> 상반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반부 마지막 수업은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 시간과 함께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오해할까 염려되어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한 리더가 기도를 받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은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영적 성장은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알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 후반부 내용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2주 후 다시 시작할 때 배움에 대한 마음이 이어지며 더 좋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 이안의 피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안의 피부병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가려움으로 인해 보채기도 하고, 등에 가려움을 느껴 벽에 등을 대고 비비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기는 일이 반복되어 세 곳의 병원을 다녔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는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낫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 중에는 호르몬 연고도 있어 장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상

환입니다. 이안이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피지에서 선교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이안의 상황을 들으시고 연락을 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후원교회와 후원자 여러분, 선교지 적응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지 수바에서  
최에녹, 진실라, 이안 드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 2035 6666 02  
장산교회 선교부

## 부록사진

- 1-2 난디로 함께 가는 길
- 3 이안이 난디 교회에서
- 4 난디 교회 기도회
- 5 자매님, 중국인 목사님 부부와 함께



- 엘립 중국인 교회 애들
- 엘립 중국인 교회 기도회
- 엘립 중국인 교회 예배 시간
- 함께 주일 점심 섬김  
(제가 잘하는 가지 요리)
- 배에서 일하는 성도에게 전한 작은 선물  
(한국에서 가져온 비타민을 우유팩으로 포장)



- 매주 이안과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 합니다.
- 동화책 나눔으로 채워진 은혜

